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모기지율 4주째 하락...2019년 이래 최장 기록
- Bloomberg: 뉴욕시 업체들, '마음대로 해고' 못한다

#### [미국 금융]

- WSJ: 오일 가격과 에너지 주식은 반대로 움직여

#### [연방 상원 선거]

- WSJ: 조지아 연방 상원 선거 민주당 승리. 민주 공화 51:50석

#### [부동산]

- WSJ: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에 6억5천만불 규모의 아파트 추진

#### [중국]

- WSJ: 중국 정부, 대부분의 코비드 테스트/격리 조치 철회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S&P "美 경제, 생각보다 탄력적...내년 GDP 0.3% 확장"
- 연합뉴스: 美의회 중국산 반도체 규제법, 미국 업계 반발에 완화할 듯
- 연합뉴스: 미국·EU,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틱톡, 미 정부와 '국가안보합의' 지연...보안 위험성 탓
- CNBC: 맥도날드, 모바일 앱 사용 확대 위해 '50센트 더블 치즈버거' 선보여
- Bloomberg: IT 기술은 도시를 구하지 못한다
- The Economist: 인공지능, 마침내 비즈니스에 침투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Mortgage Rates Fall a Fourth Week, Longest Stretch Since 2019**

#### **모기지율 4주째 하락... 2019년 이래 최장 기록**

- 12월 2일로 끝나는 주의 30년 계약 모기지율이 8 베이스스 포인트 내린 6.41%를 기록했다. MBA(Mortgage Bankers Associatio)에 따르면 지난 9월 중반 이래 여전히 가장 낮은 모기지율이라는 것.
- 모기지율은 최근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이면서 (12월 회의를 가리킨다) 지난 한 달간 내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A 모기지 구매 지수는 지난 5주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3%로. 이는 수요가 번덕스럽고, 모기지 신청 건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 재 금융 활동은 올랐지만, 여전히 20년 동안 거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NYC Bill Would Ban Firing Most Workers Without a Good Reason

#### 뉴욕시 업체들, '마음대로 해고' 못한다

- 뉴욕시 의회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미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at-will,"(마음대로) 조항으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관련 주법이나 연방법에 저촉이 안될 경우를 전제로 이유 없이, 사전 경고 없이 아무 때나 해고 할 수 있다는 것.
-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법은, 고용주가 1) 직원의 잘못된 행위를 증명하거나 2) 직원의 불만족스러운 업무 성과 3) 그 직책을 없애야 할 경제적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종업원의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바꾸어 말해 부당한 해고 시에는 뉴욕시 해당 정부 관리와 법적 중재자, 주판사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수만 명의 패스트푸드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해당 법을 시행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WSJ: Oil Prices and Energy Stocks Are Headed in Different Directions.

#### What Gives?

#### 오일 가격과 에너지 주식은 반대로 움직여

- 월가 연말 주식은 랠리 분위기인데 오일은 정반대다. 최근 인플레이 정점 기대감이 주식과 채권에 수익 급증을 가져다주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오일 수요를 잠식하리라는 우려 속에 오일 가격은 흔들리고 있다.
- 연준의 금융 긴축이 원자재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화요일 미 원유 선물 가격은 올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 에너지 주가는 올해 거의 3분의 2 이상 올랐다. 심지어 미 원유 선물이 러시아 침공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거의 40%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WSJ 기사

**[연방 상원 선거]****WSJ: Georgia Democrat Raphael Warnock Wins Runoff, Re-Elected to Senate****조지아 연방 상원 선거 민주당 승리. 민주 공화 51:50석**

-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Raphael Warnock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전 풋볼 선수 공화당 Herschel Walker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 앞서 지난달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이미 50석을 확보한 상태였던 민주당은 조지아 승리로 51석을 확보해 과반수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에 집권 후반기 정책 수행에 긍정적인 힘이 된다는 것.
- 중간선거 후에 연방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라는 양원 권력 분점 구조가 된 것이다.

WSJ 기사

**[부동산]****WSJ: In White Plains, N.Y., the Long Death of an Old Mall****뉴욕 화이트 플레인스에 6억5천만불 규모의 아파트 추진**

- White Plains Mall 이라 불리는 이 자리는 오랫동안 상권이 죽은 곳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오래된 대형 쇼핑몰은 노후되고 있다. 특히 쇼핑몰은 할인 혜택을 제공치 않고,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쇼핑몰에 경쟁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92년 이래 이 같은 오래된 쇼핑몰의 5분의 1은 재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
- 화이트 플레인스 쇼핑몰은 17만 스퀘어 피트의 2층 구조로 7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이번에 대규모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중국]****WSJ: China Scraps Most Covid-19 Testing, Quarantine Requirements****중국 정부, 대부분의 코비드 테스트/격리 조치 철회**

- 중국 정부는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혀 코비드 통제 조치를 철회하려는 방안을 가속화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코비드 테스트와 격리 조치를 철회했다. 그리고 전체 도시를 봉쇄하는 지방 관리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 정부의 이 같은 제한 조치 변경은 11월 최고치로 기승을 부리는 코비드 전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 보다는 오히려 코비드 제한 조치에 따른 중국 경제 타격에 더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인포: S&P "美 경제, 생각보다 탄력적...내년 GDP 0.3% 확장"
- 연합: 美의회 중국산 반도체 규제법, 미국 업계 반발에 완화할 듯
- 연합: 미국·EU,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ikTok National-Security Deal Faces More Delays as Worry Grows Over Risks****틱톡, 미 정부와 ‘국가안보합의’ 지연...보안 위험성 탓**

-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미 정부와의 국가안보합의를 앞두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동영상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 기업 신뢰 수준 등에 대해 미국 관리 입장에서 다양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며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틱톡과 베이징에 본사를 둔 소유주 ByteDance Ltd.에 정치적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협정은 적대국에 기반을 둔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거나, 체제 선전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할 가능성 등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 틱톡 측은 앱 밖에서 검색 기록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WSJ 기사

**CNBC: McDonald's hopes deals like 50-cent double cheeseburgers beef up sales on its mobile app****맥도날드, 모바일 앱 사용 확대 위해 ‘50센트 더블 치즈버거’ 선보여**

- 이번 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 지속될 이번 프로모션은 맥도날드의 손실 없이 자사 모바일 앱 사용을 늘리려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다.

- 1년이 조금 더 지난 이 같은 고객 충성도 확보 전략을 올해 9월 현재에 지난 90일 동안 자사 모바일 앱의 사용자는 2천5백만명을 확보했다.

#### CNBC 기사

### **Bloomberg: The Technology That's Not Going to Save Your City** IT 기술은 도시를 구하지 못한다

- “Walkable City: How Downtown Can Save America, One Step at a Time”의 저자 Jeff Speck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자율주행차 모두 도시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자가용 소유를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입된 Uber와 Lyft는 더 많은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교통 혼잡 원인이 되는 위반의 거의 3분의 2가 Uber와 Lyft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차량 탑승 시간은 31% 증가했다.
- 한편 최근에는 자율주행차가 도시를 혁신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완벽해질 수 없다. 이미 고속도로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에 운전대를 넘겨주고 있지만,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게다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은 비교적 프로그래밍이 쉬운 반면, 무한한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도시 교통을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최근 하버드와 MIT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교통 체증과 에너지 소비와 배출을 늘릴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의 통행 수준이 가히 미친 수준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도시는 더 혼잡해질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

#### Bloomberg기사

### **The Economist: Artificial intelligence is permeating business at last** 인공지능, 마침내 비즈니스에 침투한다

- 수십 년 동안 기술자들은 인공지능이 기업과 고객에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면서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기업의 50%가 어떤 방식으로든 AI를 사용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에서 크게 늘어난 것.
- 또한 수많은 대기업들은 AI 인재를 필사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S&P500의 미국 대기업들은 52개의 AI 스타트업에 인수했고, 9~11월간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구인 공고는 매달 7천 건으로 2020년 1분기의 10배에 달했다.

-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용해 고객에게 판매할 기회를 빠르게 잡아냈다. 이는 AI가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이제 AI를 공급망 관리와 같은 분석에서부터 바탕 모델(foundation models)을 통한 콘텐츠 조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초안 작성에까지 이용하면서 엄청난 양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있다.
- 하지만 기업들은 AI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받은 AI 바탕 모델은 때로 편견과 폭력까지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무슬림 교인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라는 문구를 넣으면 AI를 통한 그다음 답변은 기독교 인이나 불교도인 보다 폭력을 언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 또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1만이 AI로 수익을 봤다고 답했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AI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

The Economist 기사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